천국경매가격

(마13:44~46)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경매가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천국경매가격, 천국도 경매를 하느냐?
낯선 단어의 조합입니다.
그러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비유 말씀이 천국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는 말씀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소유를 다 팔아야만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참 뜻이 뭔가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1999년에 미국의 한 경매장에서 여성용 드레스 한 벌이 우리 돈으로 무려 13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당시 미국 돈으로 1,267,500 달러였으니까 우리 돈으로는 13억 원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이 드레스의 내력이 어떤 것인가 하면,
1963년 11월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는데, 그 전 해 1962년 5월 19일이 케네디 대통령의 45회 생일이었습니다.
이 생일날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가 이 생일파티에 초대받아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마릴린 먼로가 입었던 드레스가 바로 1999년 경매장에서 126만 달러에 팔리면서 인류역사상 가장 값비싼 옷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998년에 있었던 경매로 미국 메이저 리그의 야구선수인 맥과이어가 한 시즌에서 70개의 홈런을 칩니다, 그 70번째 홈런을 치게 된 공이 무려 얼마에 경매가 되었는가 하면 3000만 달러, 300억 가량이 되는 거죠.
아! 참, 경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그것을 갖고 싶어 할 때에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까 야구공 하나가 300억이 되고, 옷 한 벌이 13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단 돈 몇 만 원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있으나 마나 한 야구공 하나가 300억, 그리고 마릴린 먼로가 입었던 드레스를 누가 입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13억이나 주고 구입을 합니다, 이게 돈 장난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천국을 이런 식으로 천국경매가격이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까?
경매장에서 경매되어지는 물건처럼 하나밖에 없는 물건은 아닙니다.
물론 천국은 하나이지만 한 사람에게만 소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가격경쟁을 치러야 됩니다.
경매장에서 마릴린 먼로의 옷을 소유하고 싶어서 가격경쟁을 치르고 제일 비싼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갖는 것처럼, 천국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가격경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경매장의 가격경쟁의 스타일과는 다릅니다.
경매장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가격경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참여하는 경매에서는 가격경쟁을 나 자신과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가격경쟁의 대상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 가격경쟁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겨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치러야 될 천국의 경매가격은 도대체 얼

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스위스 은행 같은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아내와 가족들도 모르게 보화를 자기만 아는 밭에다 숨겨둡니다.
그리고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죽게 돼요, 그러면 아내도 자녀도 모른 채로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가 소작인이 농사를 짓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경우에 당시 이스라엘 법으로는 발견한 사람과 그 밭의 소유자가 절반씩 나눠 갖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농부는 그걸 숨겨둡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아마 모자란 것은 빌리기라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전부 자기 것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비도덕적이 아니냐? 이런 걸 묻는데, 비유의 초점은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윤리적이더라도 그 상황 자체를 비유로 사용하는 - 주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런 것처럼.

또 하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평생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이렇게 좋은 진주를 발견해 본 적이 없어서 그 값진 진주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산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재산이 얼마인가? 총 시가 얼마라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또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기존의 재산을 다 팔 때, 그 진주장사의 기존의 재산이 시가 총액 얼마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 팔아서'라는 데에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경매가격은 '다 팔기'입니다.
다 파는 가격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가 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지게를 지시면서 재산이

라고는 입고 있는 낡은 옷과 지게가 다이다.
그 지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천억의 부자와 지게를 지시는 아저씨가 천국경매에 참여해서 치러야 될 값은 얼마냐?
백억, 이백억, 오백 억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만원밖에 안 되는 지게가 전 재산인 지게꾼 아저씨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 되고, 재산이 천억이 되는 부자도 시가 총액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천국을 내 것으로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니까 재벌들이라든지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일부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들이 기사로 나옵니다.
훌륭합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철수 씨가 1500억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 현대그룹에서 또 5000억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몇 조를 갖고 있는 부자라고 해서 5000억이 가벼운 돈은 아닙니다.
남의 돈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천국의 값을 지불해서는 천국이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몽준 씨는 현대그룹에서 자기에게 할당된 모든 회사와 재산을 다 팔아야 천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안돼요, 수 십 조의 재산이 있으면 그걸 다 팔아야지 천국을 사는 것이고, 지게꾼 아저씨는 지게를 다 팔아야 됩니다.
다 팔아야 된다는 데에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가격경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율법에 맞추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치면 우리는 지금 새발의 핍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속도보다 늦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세리와 창기도 다 팔아야 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다 팔아야 되는데, 세리와 창기는 다 팔아야 될 기존의 소유가 별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기에게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팔기에 아까운 뭐가 있겠습니까?
세리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있는 것 같은 그렇게 팔기에 아까운 크기의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팔아야 되니까.
부자도 다 팔아야 되고 가난뱅이도 다 팔아야 되는데 다 팔기가 부자에게는 쉽지 않다 이겁니다, 많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소유의 내용이 뭘까요?
당연히 돈, 부동산, 보석, 이런 재산을 당연히 팔아야 됩니다.
이것 팔지 않으면 하나님나라 못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안돼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재벌총수들처럼 수 십 조가 있다고 해도 그 돈으로 천국을 못 사요.
현대자동차라는 기업 자체를 판다고 해도 천국은 못 사요.
왜? 현대자동차 사장님이 그것 말고도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 팔아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사장님께서 갖고 계신 게 그 기업뿐입니까?

주님께서 말하시는 기존의 소유는 내 마음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거기 제1번 순위에 재벌총수들에게는 재산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내도 남편도 소중합니다, 자식?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에 소중합니다.
또 재벌들에게만 마음에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게를 지시는 아저씨에게도 아내가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또 몸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마음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 심지어는 무형의 꿈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비전이라는 것조차도 마음에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판다는 의미가 없어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팔아야 될 재산입니다.

천국을 갖기 위하여 내가 나 자신과 싸우면서 가격경쟁을 치러야 할 때 설정된 천국을 살 수 있는 가격은 내 마음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 돈뿐만 아니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꿈과 비전들까지도 다 팔지 않으면 천국을 내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싸우는 천국의 경매가격경쟁에서 반드시 지고 맙니다, 다 팔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구원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오라, 값없이 와서 먹고 마셔라'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는데 다 팔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맞아요, 은혜로 거저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저 얻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 팔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가격경쟁에 참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과 연합하면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격이 지불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해 죽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갖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같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행위 속에 어떤 것에 대해 죽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내 마음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재산, 돈, 부동산뿐만 아니라 내 꿈과 비전까지도 내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겁니다.

왜? 천국을 갖기 위해.
천국이 가장 소중하고 천국보좌에 앉아계신 아버지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고 승천하신 주님, 부

활하셔서 이 땅에 사십 일 동안 거하시던 분이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 천국을 내 마음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느낄 수 있고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갖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사건이고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자, 천국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값을 지불해야 천국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돈을 지불하겠습니까?
소중한 자식을 하나님께 지불해야 돼요,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 자식 지불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어떻게 지불합니까?

자, 십자가에서 내가 내 재산에 대해 죽어요.
내 은행 잔고에 대해 죽습니다, 내 사업에 대해 죽고, 내 배우자에 대해 내 자식에 대해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냥 내가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하는 선처럼 그냥 마음비우기가 아니에요, 허공에다 대고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 비워서 내 마음이 편해졌다, 천국 같다, 이런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사십 일을 계시다가 가신 그 천국을 나도 마음이 느끼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마음으로 느낀다고 합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심리학적 측면에서 마음이 편하다는 이런 것이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진짜 차원이 다르나 객관적으로 있는 천국을 내가 느끼고 내 것으로 삼게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 자, 내가 내 재산에 대해 죽었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장사지낸 거예요, 폼으로 죽는 게 아니라 땅에 묻혔습니다, 땅에 묻혔을 때 그 돈을 누가 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몸이 죽어서 그 돈이 남게 되면 자식들이 갖게 될 텐데,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 현재 있는 돈에 대해 죽어 내가 장사지낸 것처럼 믿어버리면 내 재산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하나님 손으로 넘어갑니다.

내게 소중한 자식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에 대해서 불당에 가서 마음을 비우면 그냥 자식은 자식대로 따로 놀고, 나는 나대로 자식을 비워서 마음 편한 거죠.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자식에 대해 마음이 죽어서 장사지낸 바가 되면 내 자식이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지불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체는 돈 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고 믿기 위해서 돈을 지불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면, 내 마음이 모든 것에 대해 죽으니까, 내 마음이 죽을 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 재산이 들어가고, 내 미래가 들어가고, 내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받아서 어떻게 쓰실지 나는 몰라요.
내 재산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시겠지요.
입는 것도, 다.
그러나 하나님 손으로 지불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매달려야 되고, 십자가에서 매달린다는 것은 다~~ 파는 것을 말합니다, 다 파는 걸 말해요.
왜 다 팝니까?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기존의 내 마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 강화시키고 더 돈독하게 하고, 그 토대 위에서 더 확장시키고 더 많이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소유, 기존에 내 마음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족 사업 건강 등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을 더 강화하고 더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하나님께 다 십자가를 통해 지불되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마음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팔아서 빠져나가야 그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눈곱만한 것이라도 마음에 소중한 게 있으면 천국을 전격적으로 맛볼 수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곧바로 내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것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 소유가 됩니다, 마음에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실지로 멋진 자동차가 있을 때, 내가 진짜 법적으로 소유하지는 못해도 마음으로는 소유해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소유한 것도 팔아야 되고, 마음에서 소유한 것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내 것으로 용인된 것도 팔아야 되고 - 하나님께 팔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파는 길은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하나님 손으로 모든 게 다 넘어갑니다, 내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던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하셨어요,
치려고 그럴 때 벌써 아브라함은 이삭을 마음에서 죽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는 벌써 이삭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손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서 사라와 동행하다가 사라를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삶의 현장, 소유를 떠나서 갑니다.
아내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천국경매가격, 나 자신과 가격경쟁을 치러야 천국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가격경쟁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어디까지 팔아야 천국을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보화의 가치를 아니까.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올바로 느낄 수가 없어요.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전에 어떻게 천국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갖고 싶어 할 만큼 천국은 갖게 되면 굉장한 것이다'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경매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다 가지세요. 내 몸까지 다 가지세요, 내 몸이 내일 죽든지 모레 죽든지 이 몸도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드릴 테니까 다 가지세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 가지세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죽었다고 믿는 것,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 자체에는 돈 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난 결과는 다 팔아요, 다 팔아, 천국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다 넘겨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넘겨드리는 모든 것, 재산과 은행잔고와 부동산, 자식, 아내, 가족, 사업 모든 게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 한 것을 다 팔라는 얘기에요, 주님의 말씀은.
원래가 아버지 것이었고 하나님 거였던 것은 내가 도둑질해서 내 마음속에 소중한 것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희 씨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현대그룹 회장이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면 도둑질 하는 거지요.
다 하늘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본래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다 돌려드리는데,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데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아닙니까?

‘다 판다’는 이 말씀은 이 비윤리적인 느낌이 드는 농부의 얘기를 꺼내신 것은 주님께서 도둑질해서 마음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들을 그 상태를 인정하시고,
‘그래, 좋다, 너희 것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제 천국을 갖기 위해서 다 팔아라’
‘너희가 소중하게 여겼던 도둑질한 것들 다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 것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몇 천만 배 알맞게 사랑하시고 알맞게 이끌어 가실 테니까 천국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 다 넘겨드리고 너희는 천국을 갖는 것으로 만족해라’
‘모든 것이 없어도 천국 하나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 정도로 천국이 좋은 거니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경매에 참여하셔서 십자가로 가격을 지불하시고, 다 파세요, 다 팔아서 천국을 갖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 손으로 넘어간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떻게 이끌려지는가 보면서 찬양하며 사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천국경매에 참석하여 십자가를 통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천국을 실제로 내 것으로 삼아 천국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느라 하나님 손에 넘어간 기존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며, 감사와 찬양을 끊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